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10 COCA-COLA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Coca-Cola」 (원서 PDF 80~86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워싱턴 컨센서스는 왜 라틴아메리카에서 버림받았는가."

이 장은 따로 소개가 필요 없는 음료 코카콜라로 시작한다. 콜라가 너무 달아 얼음을 잔뜩 넣어 마신다는 저자는 콜라가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 된 이야기, 투명한 콜라를 주문한 소련의 주코프 원수 이야기, 와인 · 코카 잎 · 콜라 너트로 만든 '신경 강장제'에서 출발한 콜라의 역사를 차례로 들려준다. 이야기는 콜라에서 빠진 코카 잎을 따라 안데스로 건너가, 코카 농민 출신으로 볼리비아 대통령이 된 에보 모랄레스와 그가 맞선 '워싱턴 컨센서스', 곧 신자유주의 정책 묶음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볼리비아와 라틴아메리카 '핑크 타이드' 정부들이 신자유주의의 예측을 뒤엎고 평등과 성장을 함께 이루었지만 고생산성 산업을 키우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모든 나라에 같은 처방을 내린 워싱턴 컨센서스는 고객을 만족시켜 성공을 이어 가는 코카콜라와 달리 역사의 황혼 속으로 사라질 것 같다고 말한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5장(새우)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개발도상국은 생산자가 자랄 '공간'이 필요하다(85쪽 ¶2) / 핑크 타이드는 신자유주의의 예측을 뒤엎었다(83쪽 ¶2~¶4) / 고생산성 산업을 키우지 못한 한계(83쪽 ¶5) / 신자유주의는 부자 나라에서도 실패했다(85쪽 ¶1) / 워싱턴 컨센서스는 사라질 것 같다(85쪽 ¶3)
4~5	**밑줄 함축 의미**	the symbolic minefield that is Coca-Cola / A brilliant manoeuvre worthy of one of the greatest military strategists / no original members left any more / 'left the band' / still in the band but only as a ghost / defied the sceptics / a bizarre travesty of socialism / it was as if Americans had voted to ban Coca-Cola / Perish the thought / a 'cookie cutter' approach / the twilight of history
6	지칭 추론	he · his · him이 주코프와 아이젠하워 사이를 오가는 80쪽 ¶5~81쪽 첫 줄 / it(80쪽 ¶2 = Coca-Cola) / It · it(81쪽 ¶5 = kola nut) / it(82쪽 ¶1 take it out = coca leaf) / the latter(82쪽 ¶3 = 미국 정부) / them · They(83쪽 ¶3 = 핑크 타이드 정부들) / it(84쪽 첫 줄 = 정권 상실) / them(84쪽 ¶6 =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
7~8	내용 일치·불일치	Standage와 인도의 코카콜라(80쪽 ¶3~¶4) / 콜라의 성장과 이름(81쪽 ¶3~¶4) / 1885 · 1886 · 1894 · 1910년대 중반 · 1920년대 · 1930년대 · 1938 · 1977 · 1991 · 1993 · 2016 · 2005 · 2006~19 · 0.5% · 3% · 0.57 → 0.48 · 2012~13 · 1973 · 2021 · 2022
9~10	**어법**	have + O + p.p. · find + O + 형용사 · 관계대명사 what · 이유의 분사구문 · come to V · be said to have p.p. · be seen to V · 보어 도치 · whose · 결과의 분사구문 · enable + O + to V · It is said that · 과거완료 · the latter · go on to V · 독립분사구문 · let + O + 원형 · while + 분사(양보) · respectively · as if + 과거완료 · as ~ as 뒤 도치 · 가목적어 it · in which · look set to V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dilute↔concentrate · dissident↔conformist · nondescript↔distinctive · prohibit↔permit · counterfeit↔genuine · suppress↔stimulate · synthetic↔natural · privatization↔nationalization · defy↔confirm · predecessor↔successor · rigidly↔flexibly · twilight↔dawn
12	빈칸 추론	Bolivia's performance defied the sceptics(83쪽 ¶1) / the Washington Consensus policies are so named because(82쪽 ¶4) / a successful product requires happy customers(85쪽 ¶3) / the need for a much more active role for the state(84쪽 ¶6~85쪽 첫 줄)
13	문장 삽입	핑크 타이드의 퇴조와 귀환(83쪽 ¶6~84쪽 ¶1): 원자재 호황의 끝 → 2010년대 후반의 정권 상실 · 볼리비아의 쿠데타 → 그러나 구체제로 돌아가지 않음 → 아르헨티나 · 볼리비아의 재집권 → 2022년 브라질 전망
14	무관한 문장	안데스의 코카와 모랄레스(82쪽 ¶2~¶4)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1894년의 병입, 81쪽 ¶3) 끼워 넣기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5	순서 배열	펨버턴의 발명(81쪽 ¶1~¶2): 1885년 French Wine Coca → Vin Mariani와 콜라 너트라는 혁신 → 1886년 금주 → 설탕 · 감귤 오일 → Coca-Cola
16	요약문 완성	워싱턴 컨센서스 거부가 덜 보인 아시아(애초에 덜 엄격히 따름)와 아프리카(자금을 워싱턴 기관에 의존)(84쪽 ¶4~85쪽 첫 줄)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연도 · 인물 · 지역 · 비율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2000년대 중반(Standage) · 200개 지역 · 1977(면허 취소) · 1991(인도의 자유화) · 1993(복귀) · 1945~46(주코프) · 1885(French Wine Coca) · 1886(금주) · 1894(병입) · 1910년대 중반 · 1920년대 · 1930년대 · 1938 · 2016(콜라 너트 대체) · 2006~19(모랄레스 재임) · 1858~72(후아레스) · 2005 · 0.5% → 3% · 0.57 → 0.48 · 1.3% · 30% → 10% · 2012~13 · 2019 · 2020 · 2021 · 2022 · 1973 · 1.6% → 0.3% · 3.1% → 0.8%. 1885는 French Wine Coca를 내놓은 해이고 1886은 알코올이 금지된 해다. 인물도 많다(Standage · 주코프 · 아이젠하워 · 펨버턴 · 로빈슨 · 모랄레스 · 후아레스 · 마두로 · 차베스 · 룰라 · 호세프 · 보리치).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합작 거부 ↔ 합작 수용, 1993 ↔ 1991, 펨버턴 ↔ 로빈슨, 서아프리카 ↔ 남아메리카 서부, 식욕 억제 ↔ 식욕 증진, 0.5% ↔ 3%, 덜 엄격히 ↔ 똑같이 엄격히, 아시아 ↔ 아프리카). 전언 · 추측(is said to · It is also said · possibly · seem to have been · arguably · looks set to)을 사실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Coca-Cola」 (80~85쪽)

논증형(얼음 넣은 콜라 → 세계의 콜라와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 → 주코프의 투명한 콜라 → 펨버턴의 발명과 콜라의 성장 → 콜라 너트와 코카 잎 → 안데스의 코카 → 모랄레스와 워싱턴 컨센서스 → 볼리비아의 성과 → 핑크 타이드의 성과와 한계 → 퇴조와 귀환 · 칠레의 보리치 → 아시아 · 아프리카 · 부자 나라 → 결론: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한 정책은 사라진다). 핵심 축은 **워싱턴 컨센서스(신자유주의) vs 국가의 적극적 역할**, 그리고 **경제학자들의 예측 vs 실제 성과**.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80 ¶1~¶2	도입	콜라를 즐겨 마시지 않음 / 너무 달아서 차게 식혀도 얼음을 (많이) 넣어 희석 · 병 · 캔째로는 안 마심
80 ¶3	세계의 콜라	수십억 명은 생각이 다름 / Standage(2000년대 중반): 200개 지역 · 'OK' 다음으로 널리 통하는 말이라고 한다
80 ¶4	자본주의의 상징	옛 소련의 반체제 청년 = 자유 / 인도 좌파 = 소비주의 · 취향 조작 / 1977 면허 취소 → 1993 복귀
80 ¶5~81 첫 줄	주코프	아이젠하워에게 소개받았다고 한다 / 1945~46 투명한 콜라 특별 주문 · 브뤼셀에서 생산
81 ¶1	발명	펨버턴 · 1885 French Wine Coca(코카 잎 · 콜라 너트 · 와인) / Vin Mariani / 혁신 = 콜라 너트
81 ¶2	무알코올로	1886 금주 → 알코올을 빼고 설탕 · 감귤 오일 → Coca-Cola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81 ¶3~¶4	성장과 이름	약국 소다 파운틴 · 1894 병입 · 1910년대 중반 가짜 · 1920년대 수출 · 1938 / 이름 = Frank Robinson
81 ¶5~82 첫 줄	콜라 너트	서아프리카 · 카페인 · 테오브로민 / 각성 · 식욕 억제 / 공동체 의식 / 노예선(전언)
82 ¶1	떠난 멤버	2016 합성 화학물질로 대체 / 코카 잎은 20세기 초에 이미 '탈퇴'(코카인의 중독성)
82 ¶2	안데스의 코카	남아메리카 서부 원산 / 원주민이 씹거나 차로 · 중독 · 해 없음 · 문화 · 종교적 역할
82 ¶3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2006~19) · 두 번째 원주민 대통령 · 코카 농민 / 강제 근절 반대 운동
82 ¶4	워싱턴 컨센서스	긴축 재정 · 무역 자유화 · 규제 완화 · 민영화 / 미 재무부 · IMF · 세계은행
82 ¶5~83 ¶1	볼리비아의 성과	국유화 · 로열티 인상 · 복지 확대 / 재앙 예측 ↔ 불평등 급감 · 성장률 0.5% → 3%
83 ¶2~¶4	핑크 타이드	1990년대 말~2000년대 중반 다섯 나라 / 더 큰 평등 + 더 빠른 성장 / 예외 = 마두로
83 ¶5	한계	불평등은 여전히 높음 · 고생산성 산업을 키우지 못함 / 최대 실패 = 브라질
83 ¶6~84 첫 줄	퇴조	원자재 호황의 끝(2012~13) → 2010년대 후반 정권 상실(볼리비아는 쿠데타)
84 ¶1~¶3	귀환과 확산	아르헨티나 · 볼리비아 재집권 / 멕시코 · 페루 · 콜롬비아 / 칠레 보리치(2021년 12월)
84 ¶4~85 첫 줄	아시아 · 아프리카	거부가 덜 보임 / 아시아 = 애초에 덜 엄격히 / 아프리카 = 자금 의존
85 ¶1~¶3	결론	부자 나라에서도 실패 · 개발도상국엔 재앙 / 워싱턴 컨센서스는 사라질 것 같다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콜라 마시는 법	저자 – 너무 달아 얼음을 (많이) 넣어 희석	수십억 명 – 그 단맛을 좋아함
콜라의 상징	옛 소련의 반체제 청년 – 개인 · 경제 · 정치적 자유	1980년대까지 인도 좌파 – 소비주의 · 소비자 취향의 상업적 조작
인도와 코카콜라	1977 – 합작 거부로 면허 취소	1993 – 1991년 경제 자유화 직후 복귀
주코프의 콜라	보통 콜라 – 미국 자본주의의 정수	투명한 콜라 – 캐러멜 색소를 뺌 · 브뤼셀 생산 · 평범한 병
펨버턴의 음료	1885 French Wine Coca – 코카 잎 · 콜라 너트 · 와인	1886 이후 Coca-Cola – 알코올을 빼고 설탕 · 감귤 오일
원년 멤버	콜라 너트 – 2016년 합성 화학물질로 대체	코카 잎 – 20세기 초 중독성 때문에 '탈퇴'
코카 잎	콜라 속 – 코카인을 줌(중독성)	안데스 원주민 – 씹거나 차로 · 중독 · 해 없음 · 문화 · 종교적 역할
볼리비아의 정책	워싱턴 컨센서스(1982~2005) – 긴축 · 자유화 · 규제 완화 · 민영화 · 성장률 연 0.5%	모랄레스 시대 – 국유화 · 로열티 인상 · 복지 확대 · 성장률 연 3%
정책의 결과	많은 경제학자의 예측 – 끔찍한 경제 재앙	실제 – 불평등 급감 · 성장 가속(회의론자를 무색하게 함)
핑크 타이드의 평가	성과 – 더 큰 평등 · 더 빠른 성장(마두로의 베네수엘라는 예외)	한계 – 높은 불평등 · 고생산성 산업 육성 실패(최대 실패 = 브라질)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거부가 덜 보인 곳	아시아 — 애초에 덜 엄격히 따름 · 빌릴 일이 적음 · 덜 이념적	아프리카 — 피해는 더 컸지만 자금을 워싱턴 기관에 더 의존
부자 나라의 성적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 느린 성장 · 높은 불평등 · 잦은 금융 위기	앞선 '혼합 경제' — 정부가 시장의 힘을 더 적극적으로 억제 · 규제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Coca-Cola ([제목])	(American) · 'You know what it is' / 저자는 콜라를 즐겨 마시지 않음 · 더운 여름 오후엔 얼음처럼 찬 콜라가 최고 · 너무 달아 얼음을 (많이) 넣어 희석 · 병 · 캔째 마시지 않음(필요하면 사발에라도)
Tom Standage	영국 언론인 · **2000년대 중반**에 씀 / 코카콜라 회사가 활동하는 **200개** 지역(유엔 회원국보다 많음) ·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제품 · 'OK' 다음으로 널리 통하는 말**이라고 한다**
콜라의 상징	**아마도** 가장 상징적인 미국 제품 → 미국 자본주의(의 좋은 점 · 나쁜 점) / 85쪽 각주 i: 과장하면 안 됨 · Levi's 청바지 · Marlboro 담배 · 로큰롤 밴드의 LP 음반도 상징
인도와 코카콜라	1980년대까지 인도 좌파 = 소비주의 · 취향 조작의 상징 / **1977년**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거부 → 면허 취소 / **1991년** 경제 자유화 직후 **1993년** 복귀
Georgi Zhukov	소련 원수 · 레닌그라드 ·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승리를 지휘 / 전쟁 중 미국 장군(뒤에 대통령) 아이젠하워에게 콜라를 소개받아 반했다**고 한다**
투명한 콜라	유럽 주둔 소련 점령군 사령관 시절(**1945년 5월~1946년 6월**) 특별 요청 · 캐러멜 색소를 뺌 · **브뤼셀**에서 생산 · 평범한 병 · 주코프의 유럽 사령부로
John Pemberton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 **1885년** Pemberton's French Wine Coca(코카 잎 · 콜라 너트 · 와인) / 혁신 = 콜라 너트를 더함 · '신경 강장제'로 팖
Vin Mariani	코카 잎을 **6개월** 우린 와인 · 팬 = 빅토리아 여왕 · 토머스 에디슨
1886년	당시 주 시장(애틀랜타 · 풀턴 카운티) 금주 → 알코올을 빼고 설탕(코카 잎 · 콜라 너트의 쓴맛을 가리려고) · 감귤 오일 → 무알코올 Coca-Cola
콜라의 성장	약국 소다 파운틴(의약품 이미지를 위해서였을 **수도**) / **1894년** 병입 → 장거리 운송 / **1910년대 중반** 가짜 → 'Demand the genuine.' / **1920년대** 수출 / **1930년대** 국가의 상징 / **1938년** 'the sublimated essence of America'
Frank Robinson	펨버턴의 동업자 가운데 한 사람 · 두 핵심 재료(코카 잎 · 콜라(kola) 너트)에서 이름을 지음
kola nut	**서아프리카** 원산 · 카페인(커피 · 대부분의 차보다 많음) · 테오브로민(초콜릿에도 · 「Chocolate」) / 각성 · 식욕 억제 / 공동체 모임 · 통과 의례 · 조약 · 계약 의식 / 노예선이 썼다**고 한다**
원년 멤버의 탈퇴	콜라 너트 = **2016년** 합성 화학물질로 대체 / 코카 잎 = **20세기 초** 코카인의 중독성이 드러나자 뺌 / 85쪽 각주 ii: 코카인을 완전히 뺀 '쓰고 난' 잎을 향료로만 씀
coca plant	**남아메리카 서부** 원산 / 안데스 고지대 원주민이 씹거나 차로 —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 일할 때 통증 완화 · 식욕 감소 / 중독 · 해 없음 · 문화 · 종교적 역할
Evo Morales	볼리비아 대통령(**2006~19**) · 라틴아메리카 두 번째 원주민 대통령(첫째 = 19세기 멕시코의 Benito Juárez, **1858~72**) · 코카 농민 / 코카 재배 강제 근절(미국의 '마약과의 전쟁')에 맞선 운동 / **2005년** 대통령이 됨(원서 표기)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Washington Consensus	긴축 재정 · 무역 자유화 · 규제 완화 · 민영화 /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세 기관 = 미 재무부 · IMF · 세계은행 / 앞선 20년 동안 볼리비아에 해를 끼침
모랄레스의 정책	천연가스 산업(주 수출 산업) 국유화 · 공익 사업(전기 · 수도 · 철도) (적어도 일부) 국유화 · (주로 외국) 광산 회사의 로열티 인상 · 복지 지출 확대 / 많은 경제학자 = 끔찍한 재앙 예측
볼리비아의 성과	불평등 급감(85쪽 각주 iii: 지니계수 **0.57 → 0.48** · 세계은행 · ECLAC) / 1인당 소득 성장률 **연 0.5%**(워싱턴 컨센서스 시기 **1982~2005**) → **연 3%**(모랄레스 시대)
Pink Tide	**1990년대 말~2000년대 중반** 좌파 · 좌파 성향 정당 집권: 아르헨티나 · 브라질 · 에콰도르 · 우루과이 · 베네수엘라 / 복지 · 최저 임금 · 노조 · 무역 자유화 일부 되돌림 · 보조금 · 외국 투자자 규제
베네수엘라	예외 = 마두로(경제 붕괴) / 차베스 시대는 그래도 개선(86쪽 각주 vi: **1989~99** 정체 → **1999~2012** 연 **1.3%** · 지니계수 0.45 안팎 그대로)
핑크 타이드의 한계	불평등 여전히 높음 · 고생산성 산업 육성 부족 / 최대 실패 = 브라질(룰라 · 호세프) · 철광석 · 콩 · 소고기 수출 의존(86쪽 각주 vii: 제조업 **30%** 안팎 → 10%를 조금 넘는 수준)
퇴조와 귀환	2000년대 원자재 호황(중국)이 **2012~13년**에 끝남 → 2010년대 후반 정권 상실(볼리비아는 쿠데타) / 아르헨티나(**2019**) · 볼리비아(**2020**) 재집권 / **2022년** 봄 브라질 전망
새 좌파	멕시코 López Obrador · 페루 Pedro Castillo(각각 **2019 · 2021**) · 콜롬비아 Gustavo Petro(**2022년 6월**) / 칠레 Gabriel Boric(35세 · **2021년 12월**) · 칠레 = **1973년** 쿠데타 이후 신자유주의의 선구자
아시아 · 아프리카	아시아 = 애초에 덜 엄격히 · 빌릴 일이 적음 · 덜 이념적 / 아프리카 = 피해는 더 큼 · 자금 의존(86쪽 각주 ix: 사하라 이남 연 **1.6%** → **0.3%** · 라틴아메리카 **3.1%** → **0.8%**)
신자유주의의 성적	부자 나라 = 1980년대 이후 느린 성장 · 높은 불평등 · 잦은 금융 위기 / 개발도상국 = 재앙 · '쿠키 커터' 방식(1980~90년대) / 사라질 **것 같다**(looks set to)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Coca-Cola」 (원서 PDF 80~85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0-1 얼음 넣은 콜라,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 80쪽 ¶1~¶4

원문 위치 원서 80쪽 ¶1~¶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0쪽 [제목]	Coca-Cola (American) / You know what it is	요리 설명 대신 '말이 필요 없다'는 한 줄
★	80쪽 ¶1	I cannot say I am a regular drinker of Coca-Cola – or any other type of cola	도입 — 콜라를 즐겨 마시지 않음
★	80쪽 ¶2 둘째 문장	I won't drink it straight from a bottle or a can	내용 일치
▲	80쪽 ¶2 셋째~넷째 문장	This is not because I am particular about … It is just that I need a container	not because ~ / It is just that ~
▲	80쪽 ¶2 다섯째 문장	The thing is that I want to drink Coca-Cola, even if it has been chilled, with (lots of) ice cubes in it	보어 that절 · 양보 even if
★	80쪽 ¶2 다섯째 문장	I find the drink too sweet on its own and need to have it diluted	find + O + 형용사 · have + O + p.p. — 어법 1순위
▲	80쪽 ¶3 둘째 문장	They love what to me is the overly sweet taste of Coca-Cola	관계대명사 what · 삽입된 to me
★	80쪽 ¶3 셋째 문장	Tom Standage, writing in the mid-2000s … two hundred territories … more than the United Nations has members	인물 · 숫자 — 일치 1순위
◆	80쪽 ¶3 넷째 문장(인용)	'Coca-Cola' is said to be the second most commonly understood phrase in the world, after 'OK'	전언(is said to be) — 단정 금지
▲	80쪽 ¶4 첫 문장	Being arguably the most iconic American product, Coca-Cola has come to symbolize American capitalism	분사구문 · come to V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0쪽 ¶4 둘째~셋째 문장	dissident youths in the former Soviet Union ... the left in India until the 1980s	대립 — 자유 ↔ 소비주의
★	80쪽 ¶4 넷째 문장	In 1977 ... cancelled the licence ... when the company refused to go into a joint venture with a local partner	숫자 · 까닭 — 거부 ↔ 수용 함정
★	80쪽 ¶4 다섯째 문장	came back to India in 1993, soon after its economic liberalization in 1991	1993 ↔ 1991 함정
▲	80쪽 ¶4 여섯째 문장	Few food items have been laden with so much political symbolism ... as Coca-Cola	Few ~ as ... = 최상급의 뜻
◆	85쪽 각주 i	I shouldn't overstate ... but also iconic were Levi's jeans, Marlboro cigarettes and LP records	저자의 단서 · 보어 도치

내용

저자는 코카콜라를, 아니 어떤 콜라든 즐겨 마시는 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래도 더운 여름 오후에는 저자에게도 얼음처럼 차가운 코카콜라만 한 것이 없다. 다만 병이나 캔째로 바로 마시지는 않는다. 음료 예절에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그저 담을 그릇이 필요해서다. 필요하다면 사발에 따라 마실 수도 있다. 요점은 차게 식힌 것이라도 얼음을 (많이) 넣어 마시고 싶다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는 너무 달아 묽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의 수십억 명은 저자와 생각이 다르다. 그들은 저자가 보기에 지나치게 단 콜라의 맛을 좋아한다. 영국 언론인 톰 스탠디지는 2000년대 중반에, 코카콜라 회사가 활동하는 지역이 200개로 유엔 회원국보다 많고, 그 음료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제품이며, 'Coca-Cola'는 'OK'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통하는 말이라고들 한다고 썼다. 아마도 가장 상징적인 미국 제품인 코카콜라는 미국 자본주의와 그 좋은 점 · 나쁜 점을 상징하게 되었다. 옛 소련의 반체제 청년 같은 이들에게 코카콜라는 개인적 · 경제적 · 정치적 자유의 상징이었다(85쪽 각주 i: 그 상징성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지만 Levi's 청바지, Marlboro 담배, 로큰롤 밴드의 LP 음반도 상징이었다). 1980년대까지의 인도 좌파 같은 이들에게는 미국 자본주의의 잘못, 곧 소비주의와, 더 나쁘게는 소비자 취향의 상업적 조작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 1977년 인도 정부는 코카콜라 회사가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를 거부하자, 매우 상징적인 조치로 그 회사의 인도 영업 면허를 취소했다. 똑같이 상징적으로, 그 회사는 인도가 1991년 경제를 자유화한 직후인 1993년에 인도로 돌아왔다. 세계적으로 이토록 많은 정치적 상징을 짊어진 음식은 거의 없다.

어법

- **Except that I won't drink it straight from a bottle or a can** : Except that ~ = 다만 ~이라는 점은 예외다(앞 문장에 단서를 다는 말, 주절 없이 쓰였다). won't = 고집 · 거절의 will not(~하려 하지 않는다). straight = 부사(곧바로).
- **This is not because I am particular about drinking etiquette. It is just that I need a container** : This is not because ~ = ~ 때문이 아니다(because 뒤에 절; because of는 오답). It is (just) that ~ = (그저) ~이라는 것이다 — 진짜 까닭을 밝힌다. be particular about = ~에 까다롭다.
- **I could drink it from a bowl if need be** : could = 가능성(~할 수도 있다). if need be = 필요하다면(굳은 표현).
- **The thing is that I want to drink Coca-Cola, even if it has been chilled, with (lots of) ice cubes in it** : The thing is that ~ = 요점은 ~이다(that절이 보어). even if = 양보(~하더라도). has been chilled = 현재완료 수동. with + O + 전치사구(in it) = 얼음이 들어 있는 상태로.

- **as I find the drink too sweet on its own and need to have it diluted** : as = 이유. find + O + 형용사(too sweet). on its own = 그것만으로는. have + O + p.p. = O가 ~되게 하다(콜라가 '묽혀지는' 것이므로 diluted; diluting은 오답).
- **They love what to me is the overly sweet taste of Coca-Cola** : what = 선행사를 품은 관계대명사(love의 목적어절)이자 what절 안 동사 is의 주어. to me = '내가 보기에는'이라는 삽입구.
- **Being arguably the most iconic American product, Coca-Cola has come to symbolize American capitalism, and what is good and bad about it** : Being ~ = 이유의 분사구문(As it is ~). come to V = ~하게 되다. what is good and bad about it = symbolize의 둘째 목적어(관계대명사 what절), it = American capitalism.
- **Few food items have been laden with so much political symbolism on a global scale as Coca-Cola** : Few + 명사 + so much ~ as ... = ...만큼 ~한 것은 거의 없다(사실상 최상급). be laden with = ~을 잔뜩 짊어지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egular (a.)	자주 하는, 규칙적인	habitual	occasional
container	그릇, 용기	vessel	—
particular about	~에 까다로운	fussy about	indifferent to
etiquette	예절	manners	—
dilute	묽게 하다, 희석하다	thin	concentrate
overly	지나치게	excessively	moderately
territory	지역, 영토	region	—
iconic	상징적인	emblematic	—
dissident (a.)	반체제의	rebellious	conformist
epitomize	전형적으로 보여 주다	embody	—
manipulation	조작	rigging	—
joint venture	합작 투자(사업)	partnership	—
liberalization	자유화	deregulation	restriction
laden with	~을 잔뜩 실은	loaded with	free of

내용 일치 저자 = 콜라를 즐겨 마시지 않음 · 더운 여름 오후엔 얼음처럼 찬 콜라가 최고 · 병 · 캔째 마시지 않음(예절 때문이 아니라 그릇이 필요해서, 필요하면 사발에라도) · 차게 식혀도 얼음을 (많이) 넣어 묽힘(너무 달아서) · 수십억 명은 그 단맛을 좋아함 · Standage(영국 언론인, 2000년대 중반) = 200개 지역(유엔 회원국보다 많음) ·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제품 · 'OK' 다음으로 널리 통하는 말이라고 한다 · 옛 소련 반체제 청년 = 자유 · 1980년대까지 인도 좌파 = 소비주의 · 취향 조작 · 1977 합작 거부 → 면허 취소 · 1991 자유화 직후 1993 복귀. **밑줄 의미** need to have it diluted = 그대로는 너무 달아 얼음으로 묽혀야 한다 / what to me is the overly sweet taste = 수십억 명에게는 맛있지만 저자에게는 지나치게 단 맛 / what is good and bad about it = 콜라는 미국 자본주의의 빛(자유)과 그림자(소비주의 · 취향 조작)를 함께 상징한다 / Few food items have been laden with so much political symbolism = 콜라만큼 정치적 의미를 짊어진 음식은 거의 없다 / 지칭: 80쪽 ¶2 it(drink it · it has been chilled · have it diluted) = Coca-Cola · 80쪽 ¶3 They = billions of people · Its drink = 코카콜라 회사의 음료 · 80쪽 ¶4 it(about it) = American capitalism · its economic liberalization = 인도의.

> **한 줄 요약** 저자는 너무 단 콜라에 얼음을 넣어 마시지만 수십억 명은 그 맛을 좋아하며, 콜라는 자유와 소비주의라는 미국 자본주의의 두 얼굴을 상징하게 되었다.

10-2 주코프의 하얀 콜라와 펨버턴의 발명 80쪽 ¶5 ~ 81쪽 ¶4

원문 위치 원서 80쪽 ¶5 ~ 81쪽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0쪽 ¶5 첫 문장	deftly negotiated the symbolic minefield that is Coca-Cola	비유 — 밑줄 의미
★	80쪽 ¶5 첫 문장	Marshal Georgi Zhukov, who masterminded the Soviet victories … Leningrad and Stalingrad	인물 · 고유명사
◆	81쪽 첫 줄(80쪽 ¶5 둘째 문장)	He is said to have been introduced to the drink by … Dwight Eisenhower	전언 · 완료 부정사 수동 — 단정 금지
★	81쪽 첫 줄(80쪽 ¶5 셋째 문장)	(May 1945–June 1946) … a clear version of the drink, so that he could have it without being seen to be imbibing …	숫자 · 목적 so that · 지칭 문항의 바탕
★	81쪽 첫 줄(80쪽 ¶5 넷째 문장)	taking out the caramel colouring … produced in Brussels, put in a nondescript bottle	일치 — 브뤼셀 · 평범한 병
◆	81쪽 첫 줄(80쪽 ¶5 다섯째 문장)	A brilliant manoeuvre worthy of one of the greatest military strategists in history	동사 없는 문장 · 저자의 재치
★	81쪽 ¶1 첫~둘째 문장	John Pemberton of Atlanta, Georgia … In 1885 … Pemberton's French Wine Coca … coca leaf, kola nut and wine	숫자 · 순서 배열의 첫 고리
▲	81쪽 ¶1 넷째 문장	Particularly popular was Vin Mariani, a wine in which coca leaves had been steeped for six months, whose fans …	보어 도치 · in which · whose
★	81쪽 ¶1 다섯째 문장	Pemberton's innovation was to add kola nut to the mixture	혁신 = 콜라 너트
◆	81쪽 ¶1 여섯째 문장	a 'nerve tonic' (whatever that actually means – there seem to have been …)	저자의 비꼼 · 추측(seem to have been)
★	81쪽 ¶2 첫~둘째 문장	In 1886, alcohol was prohibited … added sugar (to mask the bitter taste …) and citrus oils	숫자 · 까닭 — 순서 배열
★	81쪽 ¶3 첫 문장	sold in drug stores from a soda fountain, possibly to add to its medicinal credentials	추측(possibly) · 일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1쪽 ¶3 둘째 문장	It began to be bottled in 1894, thus allowing long-distance shipment	숫자 · 결과의 분사구문
★	81쪽 ¶3 셋째~여섯째 문장	mid-1910s ... 'Demand the genuine.' ... 1920s ... 1930s ... 1938 ... 'the sublimated essence of America'	연도 – 불일치 1순위
★	81쪽 ¶4	Frank Robinson, who named the drink after the two key ingredients	이름을 지은 사람 – 펨버턴 함정

내용

코카콜라라는 상징의 지뢰밭을 솜씨 좋게 헤쳐 나간 사람이 있다. 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레닌그라드 ·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의 승리를 지휘한 게오르기 주코프 원수다. 그는 전쟁 중에 미국의 장군(뒤에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에게 그 음료를 소개받고 푹 빠졌다고 한다. 유럽 주둔 소련 점령군 사령관으로 있던 동안(1945년 5월~1946년 6월), 그는 미국 자본주의의 정수를 들이켜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고 콜라를 마실 수 있도록 코카콜라 회사에 투명한 콜라를 만들어 달라고 특별히 요청했다. 캐러멜 색소를 빼서 만든 이 하얀 콜라는 브뤼셀에서 생산되어 특징 없는 병에 담겨 주코프의 유럽 사령부로 보내졌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전략가 가운데 한 사람다운 멋진 책략이었다. 코카콜라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존 펨버턴이다. 1885년 그는 코카 잎 · 콜라 너트 · 와인이 주재료인 Pemberton's French Wine Coca를 내놓았다. 알코올과 코카 잎을 섞은 음료는 그전에도 있었다. 특히 인기 있던 것은 코카 잎을 6개월 동안 우린 와인 Vin Mariani로, 빅토리아 여왕과 토머스 에디슨도 그 팬이었다. 펨버턴의 혁신은 여기에 콜라 너트를 더한 것이었다. 이 음료는 '신경 강장제'로 팔렸다(그게 실제로 무슨 뜻이든 – 19세기 서양 세계에는 신경 문제가 많았던 것 같다). 1886년 펨버턴 음료의 당시 주 시장(조지아주 애틀랜타와 그 주변의 풀턴 카운티)에서 알코올이 금지되었다. 펨버턴은 알코올을 빼고, 와인 맛이 없어지자 너무 두드러진 두 주재료(코카 잎 · 콜라 너트)의 쓴맛을 가리려고 설탕을, 그리고 감귤 오일을 넣었다. 이렇게 나온 무알코올 음료가 코카콜라다. 코카콜라는 처음에 약국의 소다 파운틴에서 팔렸는데, 당시 탄산음료가 건강에 이롭다고 여겨졌으므로 의약품으로서의 신뢰를 더하려는 뜻이었을 수 있다. 1894년 병에 담기기 시작하면서 장거리 운송이 가능해져 잠재 시장이 크게 넓어졌다. 1910년대 중반에는 가짜가 나올 만큼 인기를 얻어, 회사는 'Demand the genuine.(진짜를 달라고 하세요)'라는 광고로 가짜를 물리치려 했다. 1920년대에 수출을 시작했고, 1930년대에는 국가의 상징이 되었으며, 1938년에는 '미국의 승화된 정수'라고 묘사되었다. 코카콜라라는 이름은 펨버턴의 동업자 가운데 한 사람인 프랭크 로빈슨이 두 핵심 재료, 곧 코카 잎과 콜라(kola) 너트에서 따와 지었다.

어법

- **One person who deftly negotiated the symbolic minefield that is Coca-Cola is Marshal Georgi Zhukov** : 주어 One person(who ... Coca-Cola) + 동사 is. the symbolic minefield that is Coca-Cola = '코카콜라라는 상징의 지뢰밭'(that = 주격 관계대명사, 콜라가 곧 그 지뢰밭이다).
- **He is said to have been introduced to the drink by the American general (later president) Dwight Eisenhower during the war and fallen in love with it** : be said to have p.p. = ~했다고 한다(본동사보다 앞선 일에 대한 전언). to have been introduced(완료 수동)와 (to have) fallen이 and로 병렬.
- **he made a special request ... to manufacture a clear version of the drink, so that he could have it without being seen to be imbibing the essence of American capitalism** : so that + S + could = ~할 수 있도록(목적). without + 동명사 수동(being seen). see + O + V의 수동은 be seen to V(to가 살아난다) → being seen to be imbibing.

- **The white version, which was created by taking out the caramel colouring, was produced in Brussels, put in a nondescript bottle and shipped to the Marshal's European headquarters** : 계속적 which(삽입). 주어 The white version + was produced · (was) put · (was) shipped 병렬(수동). by + 동명사 = 수단.
- **In 1885, he launched Pemberton's French Wine Coca, whose main ingredients were coca leaf, kola nut and wine** : whose = 소유격 관계대명사(선행사 French Wine Coca — 사물에도 쓴다).
- **Particularly popular was Vin Mariani, a wine in which coca leaves had been steeped for six months, whose fans included Queen Victoria and Thomas Edison** : 보어(Particularly popular) + 동사 + 주어 도치.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선행사 a wine). had been steeped = 과거완료 수동. whose의 선행사 = Vin Mariani.
- **there seem to have been a lot of nerve problems around in the nineteenth-century Western world** : there seem to have been = ~이 있었던 것 같다(완료 부정사 = 과거 일에 대한 지금의 추측). 뒤의 진짜 주어가 복수(a lot of nerve problems)라 seem.
- **It began to be bottled in 1894, thus allowing long-distance shipment and thereby greatly enlarging its potential market** : begin to be p.p. = 수동 부정사. thus + 분사(allowing) · thereby + 분사(enlarging) = 결과의 분사구문.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eftly	솜씨 좋게	skilfully	clumsily
minefield	지뢰밭(위험이 숨은 곳)	hazard	—
mastermind (v.)	(계획을) 지휘하다	orchestrate	—
imbibe	마시다, 들이켜다	drink	—
nondescript	특징 없는, 평범한	plain	distinctive
manoeuvre	책략, 묘수	tactic	—
steep (v.)	(액체에) 담가 우리다	soak	—
tonic	강장제	restorative	—
prohibit	금지하다	ban	permit
mask (v.)	가리다, 감추다	disguise	reveal
prominent	두드러진	noticeable	inconspicuous
credentials	(내세울) 자격, 신뢰의 근거	qualifications	—
counterfeit	위조품	fake	genuine
repel	물리치다	fend off	attract

내용 일치 주코프 = 레닌그라드 · 스탈린그라드 전투 승리 지휘 · 아이젠하워(당시 장군, 뒤에 대통령)에게 소개받았다고 한다 · 소련 점령군 사령관(1945년 5월~1946년 6월) · 투명한 콜라 = 캐러멜 색소를 뺌 · 브뤼셀 생산 · 평범한 병 · 유럽 사령부로 / 펨버턴 = 애틀랜타 · 1885 French Wine Coca(코카 잎 · 콜라 너트 · 와인) · Vin Mariani(코카 잎 6개월 · 빅토리아 여왕 · 에디슨) · 혁신 = 콜라 너트 · '신경 강장제' · 1886 금주(애틀랜타 · 풀턴 카운티) → 알코올 대신 설탕 · 감귤 오일 · 약국 소다 파운틴 · 1894 병입 · 1910년대 중반 가짜 · 1920년대 수출 · 1930년대 국가의 상징 · 1938 · 이름 = 동업자 Frank Robinson. **밑줄 의미** the symbolic minefield that is Coca-Cola = 소련 장군이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을 마시는 일 자체가 정치적 위험이었다 / A brilliant manoeuvre worthy of one of the greatest military strategists = 색만 배서 위험을 피한 꾀를 명장의 작전에 빗댄 저자의 재치 / whatever that actually means = '신경 강장제'라는 말이 모호하다는 비꼼 / 지칭: 80쪽 ¶5~81쪽 첫 줄 He · he = 주코프 · it(fallen in love with it · have it) = the drink · the Marshal = 주코프 / 81쪽 ¶1

he(launched) = Pemberton · whose(main ingredients) = French Wine Coca · whose(fans) = Vin Mariani / 81쪽 ¶3 It · it = Coca-Cola · which(tried to repel) = counterfeits.

> **한 줄 요약** 주코프는 색을 뺀 콜라로 상징의 지뢰밭을 피했고, 펨버턴이 1885년 만든 와인 음료는 1886년 금주령 뒤 설탕을 넣은 무알코올 코카콜라가 되어 미국의 상징으로 자랐다.

10-3 콜라 너트와 코카 잎, 떠나 버린 원년 멤버 81쪽 ¶5 ~ 82쪽 ¶2

원문 위치 원서 81쪽 ¶5 ~ 82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1쪽 ¶5 첫 문장	Kola nut originates in West Africa	원산지 — 남아메리카 서부(코카) 함정
▲	81쪽 ¶5 둘째 문장	caffeine (which it contains more than coffee and most teas) and theobromine (which is also contained in chocolate …)	괄호 속 관계절 두 개
★	81쪽 ¶5 셋째 문장	chewed it in order to stimulate themselves and also to suppress appetite	어휘 문항 1순위(suppress)
▲	81쪽 ¶5 셋째 문장	thus enabling its consumer 'to undergo prolonged exertion without fatigue or thirst'	enable + O + to V · 결과의 분사구문
★	82쪽 첫 줄(81쪽 ¶5 넷째 문장)	community meetings, rites of passage and ceremonies to cement treaties and contracts	문화적 역할
◆	82쪽 첫 줄(81쪽 ¶5 다섯째 문장)	It is also said that kola nut made the foul, stale water … more palatable … slave ships	전언 — 단정 금지
★	82쪽 ¶1 첫 문장	replaced by a synthetic chemical in 2016	숫자 · 서답형
◆	82쪽 ¶1 둘째 문장	like one of those ageing rock bands which … have no original members left any more	비유 — 밑줄 의미 1순위
◆	82쪽 ¶1 셋째 문장	coca leaf … had already 'left the band' more than a hundred years ago	비유 이어 쓰기 · 과거완료
★	82쪽 ¶1 셋째 문장	when cocaine's addictive quality became clear	뺀 까닭 = 중독성
◆	85쪽 각주 ii	coca leaf is still in the band but only as a ghost … 'spent' coca leaves … only as a flavouring	본문을 다듬는 단서 — 일치 함정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2쪽 ¶2 첫 문장	the coca plant, which is native to western South America	원산지
★	82쪽 ¶2 둘째 문장	chewed or brewed as tea by indigenous people, to relieve pains … oxygen-poor atmosphere … reduce appetite	까닭 두 가지 · in the same way that
★	82쪽 ¶2 셋째 문장	not addictive or harmful to health and, more importantly, … play important cultural and religious roles	콜라 속 코카인과 대비
★	82쪽 ¶2 넷째 문장	Many people there grow coca plants	다음 단락(모랄레스)으로 잇는 고리

내용

콜라 너트는 서아프리카에서 비롯되었다. 콜라 너트에는 카페인(커피와 대부분의 차보다 많이 들어 있다)과 테오브로민(초콜릿에도 들어 있다 — 「Chocolate」 참조) 같은 각성 물질이 들어 있다. 이 성질 때문에 서아프리카 사람들은 기운을 돋우고 식욕을 억누르려고 콜라 너트를 씹어 왔고, 덕분에 '피로나 갈증 없이 오래 힘든 일을 견딜 수' 있었다. 서아프리카 문화에서 콜라 너트를 씹는 일은 공동체 모임, 통과 의례, 조약과 계약을 굳히는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콜라 너트가 먼 바닷길에서 더럽고 상한 물을 마실 만하게 해 주어 아프리카에서 오는 노예선이 그것을 썼다고도 한다. 2016년 코카콜라 속 콜라 너트는 합성 화학물질로 바뀌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예술적 견해 차이와 자존심 충돌로 오랜 세월 멤버가 바뀐 끝에 원년 멤버가 하나도 남지 않은 나이 든 록 밴드처럼 되었다. 다른 창립 멤버인 코카 잎(콜라 너트의 카페인 · 테오브로민에 더해 코카인을 주던 재료)은 이미 100여 년 전인 20세기 초에 '밴드를 떠났다'. 코카인의 중독성이 분명해지자 회사가 코카 잎을 제조법에서 빼기로 했기 때문이다(85쪽 각주 ii: 더 정확히 말하면 코카 잎은 유령으로만 밴드에 남아 있다. 회사는 코카인을 완전히 뽑아낸 '쓰고 난' 코카 잎을 향료로만 쓰고 있다). 코카인은 남아메리카 서부가 원산인 코카나무에서 얻는다. 특히 그 자생지 가운데 고도가 높은 안데스 지역의 원주민들은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 일할 때 통증을 덜고, 코카 잎이 (콜라 너트처럼) 식욕을 줄여 주므로 먹지 않고도 버티려고 코카 잎을 씹거나 차로 우려 왔다. 이런 방식의 코카 섭취는 중독성이 없고 건강에 해롭지 않으며, 더 중요하게는 콜라 너트를 함께 씹는 일처럼 안데스와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원주민 공동체에서 중요한 문화적 · 종교적 역할을 한다. 그곳의 많은 사람이 코카를 재배한다.

어법

- **It contains stimulants, like caffeine (which it contains more than coffee and most teas) and theobromine (which is also contained in chocolate …)** : 첫 which = contains의 목적어(it = kola nut이 주어) — 비교 대상은 콜라 너트와 커피 · 대부분의 차. 둘째 which = 주격, 수동 is contained.
- **Given this property, West Africans have chewed it in order to stimulate themselves and also to suppress appetite, thus enabling its consumer 'to undergo prolonged exertion …'** : Given ~ = ~을 고려하면(전치사처럼 쓰는 분사). in order to V = 목적. themselves = 재귀(주어와 목적어가 같다). enable + O + to V. thus + 분사 = 결과.
- **It is also said that kola nut made the foul, stale water on long-distance crossings more palatable and for that reason was used by slave ships coming from Africa** : It is said that ~ = 전언(~라고 한다). make + O + 형용사 비교급(more palatable). made와 was used가 and로 병렬(주어 kola nut).
- **This has made the drink like one of those ageing rock bands which, after so many line-up changes …, have no original members left any more** : make + O + 전치사구(like ~) = O를 ~처럼 만들다. which의 선행사 = bands(복수 → have). have + O + 과거분사 left = 남은 ~이 있다(여기서는 no로 '하나도 없다').

- **coca leaf, which used to provide cocaine ..., had already 'left the band' more than a hundred years ago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 used to V = 예전에 ~했다. had left = 과거완료 — 2016년보다 앞선 일임을 보인다. 'left the band' = 밴드 비유를 이어 쓴 말.
-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when the company decided to take it out of the formula when cocaine's addictive quality became clear** : 첫 when = 관계부사(선행사 the early twentieth century), 둘째 when = 시간 접속사. take A out of B = B에서 A를 빼다. it = coca leaf.
- **coca leaves have been chewed or brewed as tea by indigenous people, to relieve pains ... and to help themselves go on without food, as coca leaves reduce appetite (in the same way that kola nuts do)** : 현재완료 수동(오래전부터 지금까지). help + O + 원형(go on). as = 이유. in the same way that ~ = ~와 같은 방식으로. do = reduce appetite를 대신하는 대동사.
- **These forms of coca plant consumption are not addictive or harmful to health and, more importantly, ... they play important cultural and religious roles** : not A or B = A도 B도 아니다. more importantly = 삽입(더 중요하게는). they = these forms of coca plant consumption.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originate	비롯되다	come from	—
stimulant	각성제, 흥분제	—	sedative
suppress	억누르다	curb	stimulate
prolonged	오래 계속되는	lengthy	brief
exertion	힘든 노력, 수고	effort	rest
fatigue	피로	exhaustion	vigour
rite of passage	통과 의례	—	—
cement (v.)	굳게 하다, 다지다	strengthen	weaken
palatable	먹을(마실) 만한	tasty	unpalatable
synthetic	합성의	artificial	natural
addictive	중독성의	habit-forming	—
be derived from	~에서 얻어지다	come from	—
indigenous	토착의, 원주민의	native	foreign
relieve	덜다, 완화하다	ease	aggravate

내용 일치 콜라 너트 = 서아프리카 원산 · 카페인(커피 · 대부분의 차보다 많음) · 테오브로민(초콜릿에도) · 기운을 돋우고 식욕을 억누르려고 씹음 · 공동체 모임 · 통과 의례 · 조약 · 계약 의식 · 노예선이 썼다고 한다 · 2016 합성 화학물질로 대체 / 코카 잎 = 코카인을 줌 · 20세기 초 중독성이 드러나자 뺌(100여 년 전) · 각주 ii = 코카인을 뺀 '쓰고 난' 잎을 향료로만 / 코카나무 = 남아메리카 서부 원산 · 안데스 원주민이 씹거나 차로(산소가 희박한 곳의 통증 완화 · 식욕 감소) · 중독 · 해 없음 · 문화 · 종교적 역할 · 많은 사람이 재배. **밑줄 의미** no original members left any more = 콜라 이름의 두 재료(코카 잎 · 콜라 너트)가 모두 빠졌다 / 'left the band' = 코카 잎이 제조법에서 빠졌다 / still in the band but only as a ghost = 코카인 없는 잎이 향료로만 남아 있다 / 지칭: 81쪽 ¶5 It · it(contains · chewed it) = kola nut · its consumer = 콜라 너트를 씹는 사람 / 82쪽 첫 줄 that reason = 물을 마실 만하게 해 준다는 것 / 82쪽 ¶1 This = 콜라 너트가 합성 물질로 바뀐 일 · it(take it out) = coca leaf / 82쪽 ¶2 its habitat = 코카나무의 자생지 · they(play) = 이런 코카 섭취 방식 · there = 안데스와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공동체.

한 줄 요약 콜라 이름의 두 재료 가운데 코카 잎은 20세기 초에, 콜라 너트는 2016년에 빠졌지만, 안데스 원주민에게 코카 잎은 해롭지 않고 문화적 · 종교적으로 중요한 작물이다.

10-4 모랄레스와 워싱턴 컨센서스 82쪽 ¶3 ~ 83쪽 ¶1

원문 위치 원서 82쪽 ¶3 ~ 83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2쪽 ¶3 첫 문장	Evo Morales, the former Bolivian president (2006–19) and the second-ever indigenous president …	인물 · 숫자 — 서답형 단어
★	82쪽 ¶3 첫 문장	after Benito Juárez, the nineteenth-century Mexican president (1858–72)	첫 원주민 대통령 — 함정
▲	82쪽 ¶3 첫 문장	was a coca farmer himself	강조의 재귀대명사
★	82쪽 ¶3 둘째 문장	his campaign against the forcible eradication of coca farming … with strong US government support … 'War on Drugs'	일치 · the latter
★	82쪽 ¶4 첫 문장	In 2005, Morales became the president on the wave of protest against … fiscal retrenchment, trade liberalization,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정책 네 가지 · 2005(원서 표기)
▲	82쪽 ¶4 첫 문장	which had ill-served his country in the preceding two decades	과거완료 · 계속적 which
★	82쪽 ¶4 둘째 문장	so named because they are advocated by … the US Treasur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and the World Bank	이름의 까닭 · 세 기관
★	82쪽 ¶5 첫~둘째 문장	nationalized the natural gas industry … (at least partially) nationalize the 'utilities' … raised the royalties … increased social welfare spending	정책 목록 — 일치
▲	83쪽 첫 줄(82쪽 ¶5 셋째 문장)	nationalized industries, hostile policies towards foreign investors and 'downward' income redistribution being the worst things	독립분사구문(의미상 주어 + being)
★	83쪽 ¶1 첫 문장	But Bolivia's performance defied the sceptics	빈칸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3쪽 ¶1 둘째 문장	Given Morales's policies, it was natural that the country saw a dramatic fall in income inequality	가주어 it + that절
★	83쪽 ¶1 셋째 문장	from 0.5% per year during the period of Washington Consensus (1982–2005) to 3% per year during the Morales era	숫자 1순위 — 0.5 ↔ 3
★	85쪽 각주 iii	Gini coefficient ... fell from 0.57 to 0.48 ... the World Bank and ... (ECLAC)	숫자 · 지니계수의 뜻

내용

볼리비아 대통령(2006~19)을 지냈고, (19세기 멕시코 대통령(1858~72) 베니토 후아레스에 이어) 라틴아메리카에서 역사상 두 번째 원주민 대통령이 된 에보 모랄레스는 그 자신이 코카 농민이었다. 그는 코카 재배의 강제 근절에 맞선 운동으로 정치적 두각을 나타냈다. 강제 근절은 볼리비아 정부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미국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추진하던 것이었다. 2005년 모랄레스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 곧 긴축 재정 · 무역 자유화 · 규제 완화 · 민영화에 맞선 항의의 물결을 타고 대통령이 되었다. 이 정책들은 앞선 20년 동안 볼리비아에 해를 끼쳐 왔다. 이 정책들이 '워싱턴 컨센서스'라 불리는 것은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국제적으로 가장 힘센 세 경제 기구, 곧 미국 재무부 · 국제통화기금(IMF) · 세계은행이 이를 옹호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되자 모랄레스는 나라의 주 수출 산업인 천연가스 산업을 국유화했다. 이어서 '공익 사업'(전기 · 수도 · 철도)을 (적어도 일부) 국유화하고, (주로 외국) 광산 회사가 (나라의 광물 자원을 지키는 쪽인) 정부에 내는 로열티를 올리고, 사회 복지 지출을 늘렸다. 많은 경제학자는 그의 변화가 끔찍한 경제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르면 산업 국유화, 외국 투자자에게 적대적인 정책, '아래로 향하는' 소득 재분배야말로 정부가 경제에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볼리비아의 성과는 회의론자들을 무색하게 했다. 모랄레스의 정책을 생각하면 그의 임기 동안 소득 불평등이 극적으로 줄어든 것은 당연했다(85쪽 각주 iii: 지니계수가 0.57에서 0.48로 떨어졌다 — 세계은행과 유엔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의 자료). 그런데 경제 성장도 눈에 띄게 빨라졌다. 1인당 소득 성장률이 워싱턴 컨센서스 시기(1982~2005)의 연 0.5%에서 모랄레스 시대의 연 3%로 올랐다.

어법

- **Evo Morales, the former Bolivian president (2006–19) and the second-ever indigenous president of a Latin American country ..., was a coca farmer himself** : 주어와 동사(was) 사이에 동격 명사구 두 개가 and로 이어졌다. the second-ever = 역사상 두 번째. himself = 주어를 강조하는 재귀대명사(빼도 문장 성립).
- **He came to political prominence through his campaign against the forcible eradication of coca farming, which the Bolivian government was pursuing ...** : come to prominence = 두각을 나타내다. which = pursuing의 목적어(선행사 the forcible eradication of coca farming). was pursuing = 과거진행.
- **with strong US government support, as part of the latter's 'War on Drugs'** : the latter = 앞에 나온 둘(볼리비아 정부 · 미국 정부) 가운데 뒤의 것 = 미국 정부.
- **policies of fiscal retrenchment, trade liberalization,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which had ill-served his country in the preceding two decades** : which = 계속적 용법(선행사 policies). had ill-served = 과거완료 — 2005년 이전 20년 동안 이어진 일.
- **The Washington Consensus policies are so named because they are advocated by the three most internationally powerful economic organizations headquartered in Washington, DC, namely, ...** : be so named = 그렇게 이름 붙여지다. headquartered = organizations를 꾸미는 과거분사. namely = 곧(구체적으로 나열).

- **He then went on to (at least partially) nationalize the 'utilities' …, raised the royalties that (mostly foreign) mining companies paid to the government … and increased social welfare spending** : go on to V = 이어서 ~하다(to와 원형 사이에 괄호 속 부사구가 끼었다). went on · raised · increased 병렬. that = paid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 **Many economists predicted his changes would lead to a dire economic disaster – nationalized industries, hostile policies … and 'downward' income redistribution being the worst things …** : predicted (that) ~ = that 생략. 대시 뒤 = 독립분사구문(의미상 주어 nationalized industries … + being) — 그렇게 예측한 까닭을 덧붙인다.
- **the growth rate of its per capita income rose from 0.5% per year … to 3% per year during the Morales era** : rise from A to B = A에서 B로 오르다(자동사 rise — raise는 오답). per capita = 1인당.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rominence	두각, 명성	fame	obscurity
forcible	강제적인	coercive	voluntary
eradication	근절	elimination	—
fiscal	재정의	budgetary	—
retrenchment	긴축, 삭감	cutback	expansion
deregulation	규제 완화	liberalization	regulation
privatization	민영화	—	nationalization
ill-serve	해를 끼치다	harm	benefit
advocate (v.)	옹호하다, 주창하다	champion	oppose
nationalize	국유화하다	—	privatize
royalty	사용료, 로열티	fee	—
dire	끔찍한	dreadful	—
defy	(예상을) 뒤엎다	confound	confirm
sceptic	회의론자	doubter	believer

내용 일치 모랄레스 = 볼리비아 대통령(2006~19) · 라틴아메리카 두 번째 원주민 대통령(첫째 = 후아레스, 19세기 멕시코, 1858~72) · 코카 농민 · 코카 재배 강제 근절(1990년대 말 · 2000년대 초,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에 맞선 운동으로 두각 · 2005년 대통령이 됨(원서 표기) · 워싱턴 컨센서스 = 긴축 재정 · 무역 자유화 · 규제 완화 · 민영화 · 앞선 20년 동안 볼리비아에 해 · 이름 = 워싱턴 DC의 미 재무부 · IMF · 세계은행 / 천연가스(주 수출 산업) 국유화 · 공익 사업(전기 · 수도 · 철도) 일부 국유화 · 광산 회사 로열티 인상 · 복지 확대 · 많은 경제학자 = 재앙 예측 · 불평등 급감(지니계수 0.57 → 0.48) · 성장률 연 0.5%(1982~2005) → 연 3%. **밑줄 의미** on the wave of protest =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대중의 항의를 등에 업고 / 'downward' income redistribution = 부자 쪽에서 가난한 사람 쪽으로 소득을 옮기는 일 / defied the sceptics = 재앙을 예측한 경제학자들이 틀렸음을 보여 주었다 / 지칭: 82쪽 ¶3 He = Morales · which(was pursuing) = 코카 재배의 강제 근절 · the latter's = 미국 정부의 / 82쪽 ¶4 his country = 볼리비아 · they(are advocated) =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 / 82쪽 ¶5 his changes = 모랄레스의 정책 / 83쪽 ¶1 the country · its = 볼리비아 · his term = 모랄레스의 임기.

> **한 줄 요약** 코카 농민 출신 모랄레스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맞선 항의를 타고 집권해 국유화와 복지 확대를 밀어붙였고, 재앙이라는 예측과 달리 볼리비아는 불평등이 줄고 성장도 빨라졌다.

10-5 핑크 타이드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귀환 83쪽 ¶2 ~ 84쪽 ¶1

원문 위치 원서 83쪽 ¶2 ~ 84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3쪽 ¶2 둘째 문장	Between the late 1990s and the mid-2000s … Argentina, Brazil, Ecuador, Uruguay and Venezuela … the Pink Tide	나라 · 시기 — 일치
★	85쪽 각주 iv	Néstor Kirchner and Cristina Fernández … Lula … Rousseff … Correa … Vásquez, Mujica … Chávez and Maduro	대통령 이름 — 원서 표기 Vásquez · Vázquez
▲	83쪽 ¶3 첫 문장	None of them went as far as Bolivia, but … rolled back many of the 'neo-liberal' policies	None of ~ · as far as
★	83쪽 ¶3 둘째~셋째 문장	increased welfare spending … minimum wages … trade unions … partially reversed trade liberalization … subsidies … regulations on foreign investors	정책 목록 — 제목 문항의 바탕
★	86쪽 각주 v	Neo-liberalism is a post-1980s version of nineteenth-century classical liberalism	용어 정의 · 차이점
★	83쪽 ¶4 첫 문장	defied the prediction by the neo-liberal orthodoxy and brought about both greater equality and faster growth	주장 — 제목 1순위
★	83쪽 ¶4 둘째~셋째 문장	The exception is Venezuela under … Nicolás Maduro … under his predecessor, Hugo Chávez … still an improvement	예외 — 마두로 ↔ 차베스
★	86쪽 각주 vi	stagnated … (1989–99) … 1.3% per year … (1999–2012) … Gini coefficient at around 0.45	숫자
◆	83쪽 ¶5 첫 문장	I am not saying that everything was going well	양보 — 요지의 출발점
★	83쪽 ¶5 셋째 문장	didn't try hard enough to develop … high-productivity industries that could replace … natural resource-based industries	요지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3쪽 ¶5 다섯째 문장	'Lula' (Squid!) Da Silva and Dilma Rousseff … let its once-mighty manufacturing industry decline beyond repair	let + O + 원형 · 최대 실패 = 브라질
★	86쪽 각주 vii	around 30% of its national output in the late 1980s declined to just above 10%	숫자
▲	83쪽 ¶6 첫 문장(84쪽 첫 줄까지)	the global commodity price boom of the 2000s, which had been fuelled by China's super-growth, came to an end in 2012–13	과거완료 수동 · 숫자
★	84쪽 첫 줄(83쪽 ¶6 둘째 문장)	all these governments, except the Venezuelan one … lost power in elections … except in Bolivia, where it was through a coup d'état	except 두 번 — 일치 함정
★	84쪽 ¶1 첫~둘째 문장	did not lead to the the restoration of a neo-liberal ancien régime … In Argentina and Bolivia … took back power	문장 삽입 1순위 · 원서 표기 the the
★	84쪽 ¶1 셋째 문장 · 86쪽 각주 viii	As I write in the spring of 2022 … Bolsonaro … Lula / Alberto Fernández 2019 · Luis Arce 2020 · Jeanine Añez	숫자 · 인물

내용

워싱턴 컨센서스를 거스르고 경제 성과를 높인 라틴아메리카 나라는 볼리비아만이 아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 사이에 아르헨티나 · 브라질 · 에콰도르 · 우루과이 · 베네수엘라에서 좌파나 좌파 성향의 정당이 집권했는데, 이를 '핑크 타이드(Pink Tide)'라고 부른다(85쪽 각주 iv에 각 나라의 대통령 이름이 있다). 볼리비아만큼 멀리 간 나라는 없었지만, 핑크 타이드 정부들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신자유주의' 정책 가운데 많은 것을 되돌렸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 지출을 늘렸고, 몇몇은 최저 임금을 올리고 노동조합을 강화해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자에게 가는 몫을 늘렸다. 몇몇은 무역 자유화를 일부 되돌리고, 선별한 산업에 보조금을 늘리고, 외국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Banana」 참조). 이들의 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설의 예측을 뒤엎고 더 큰 평등과 더 빠른 성장을 함께 가져왔다. 예외는 유례없이 처참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베네수엘라로, 그곳 경제는 무너졌다. 그러나 그 전임자 우고 차베스 시대의 베네수엘라 경제 성과는 다른 핑크 타이드 나라만큼 인상적이지는 않았어도 앞 시대의 신자유주의 정책보다는 나았다(86쪽 각주 vi). 저자는 핑크 타이드 나라에서 모든 일이 잘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불평등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줄었지만 국제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매우 높았다. 더 중요하게는, 광업 · 농업처럼 장기 성장 잠재력이 한정된 전통적 천연자원 산업을 대신할 고생산성 산업을 키워 지속 성장의 튼튼한 기반을 만드는 데 충분히 힘쓰지 않았다(「Anchovy」 참조). 가장 큰 실패는 브라질이었다. 룰라 다 시우바와 지우마 호세프의 정부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유주의적 무역 · 산업 정책을 대체로 이어 가, 한때 막강했던 제조업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쇠퇴하게 내버려 두었다(86쪽 각주 vii). 핑크 타이드 말기에 브라질은 신자유주의 절정기보다 천연자원(철광석 · 콩 · 소고기) 수출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 1차 상품 의존을 줄이지 못한 탓에, 중국의 초고속 성장이 부채질한 2000년대 세계 원자재 가격 호황이 2012~13년에 끝나자 핑크 타이드 나라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 결과 (마두로의 독재 아래 기괴한 사회주의 흉내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뺀 모든 정부가 2010년대 후반에 선거로 정권을 잃었다. 볼리비아만은 쿠데타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신자유주의 구체제의

복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에서는 짧은 공백 뒤에 핑크 타이드 정당이 다시 집권했다(86쪽 각주 viii). 저자가 이 글을 쓰는 2022년 봄, 많은 논평가는 우파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처참한 임기와 전 대통령 룰라의 정계 복귀에 이어 브라질의 2022년 대선에서 핑크 타이드 정부가 다시 이길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어법

- **Bolivia isn't the only country in Latin America that has defied the Washington Consensus and improved its economic performance** :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에 the only가 있으면 that을 즐겨 쓴다). has defied · (has) improved 병렬.
- **leftwing or left-leaning parties came to power in several Latin American countries … in what is known as the Pink Tide** : come to power = 집권하다. in what is known as ~ = 이른바 ~이라는 흐름 속에서(what = 관계대명사).
- **None of them went as far as Bolivia, but the Pink Tide governments rolled back many of the 'neo-liberal' policies** : None of + 복수 명사 = 아무도 ~ 않다. go as far as ~ = ~만큼 멀리 가다. roll back = 되돌리다.
- **some of them increased minimum wages and strengthened trade unions, thereby increasing the share of national income going to workers** : thereby + 분사 = 그렇게 함으로써(결과). going to workers = share를 꾸미는 현재분사.
- **Venzuela's economic performance under his predecessor, Hugo Chávez, while not being as impressive as in other Pink Tide countries, was still an improvement** : while + 분사(not being) = 양보(~이긴 하지만). 주어 performance와 동사 was 사이에 삽입. 원서 표기 Venzuela.
- **Inequality, while falling in most of them, remained still very high by international standards** : while + 현재분사 = 양보. remain + 형용사(보어). by international standards = 국제 기준으로 보면.
- **Brazil's 'Pink Tide' governments … largely continued with the liberal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 and let its once-mighty manufacturing industry decline beyond repair** : let + O + 원형부정사(decline; to decline은 오답). once-mighty = 한때 막강했던(복합 형용사). beyond repair = 회복할 수 없을 만큼.
- **the global commodity price boom of the 2000s, which had been fuelled by China's super-growth, came to an end in 2012–13** : which = 계속적 용법. had been fuelled = 과거완료 수동(호황이 끝나기 전부터 이어진 일). come to an end = 끝나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eft-leaning	좌파 성향의	leftish	right-leaning
roll back	되돌리다, 철회하다	reverse	extend
minimum wage	최저 임금	—	—
trade union	노동조합	labour union	—
subsidy	보조금	grant	tax
orthodoxy	정설, 주류 이론	dogma	heterodoxy
predecessor	전임자	forerunner	successor
sustained	지속적인	lasting	short-lived
productivity	생산성	efficiency	—
primary commodity	1차 상품(원자재)	raw material	manufactured good
fuel (v.)	부채질하다, 촉진하다	drive	dampen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utocratic	독재적인	dictatorial	democratic
travesty	엉터리 흉내	parody	—
interlude	짧은 공백, 막간	interval	—

내용 일치 핑크 타이드 = 1990년대 말~2000년대 중반 · 아르헨티나 · 브라질 · 에콰도르 · 우루과이 · 베네수엘라 · 볼리비아만큼 멀리 가지는 않음 · 복지 확대 · 최저 임금 · 노조 강화(노동자 몫 증가) · 무역 자유화 일부 되돌림 · 선별 산업 보조금 · 외국 투자자 규제 강화 · 더 큰 평등과 더 빠른 성장 · 예외 = 마두로의 베네수엘라(차베스 시대는 개선) / 한계 = 불평등 여전히 높음 · 고생산성 산업 육성 부족 · 최대 실패 = 브라질(룰라 · 호세프, 제조업 쇠퇴, 철광석 · 콩 · 소고기 수출 의존) · 2000년대 원자재 호황(중국) 2012~13 종료 · 2010년대 후반 정권 상실(베네수엘라 제외 · 볼리비아는 쿠데타) · 구체제 복원 아님 · 아르헨티나 · 볼리비아 재집권 · 2022년 봄 브라질 전망. **밑줄 의미** None of them went as far as Bolivia = 볼리비아처럼 국유화까지 밀어붙인 나라는 없다 / a bizarre travesty of socialism = 마두로의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를 기괴하게 흉내 낸 것일 뿐 / did not lead to the the restoration of a neo-liberal ancien régime = 정권이 바뀌어도 신자유주의 옛 질서로 돌아가지 않았다 / 86쪽 각주 v = 신자유주의는 사유재산의 강한 보호 · 최소한의 시장 규제 · 자유무역 · 자본 이동의 자유를 내세우되, 고전적 자유주의만큼 드러내 놓고 민주주의에 반대하지 않고, 통화(강한 중앙은행)와 지식(강한 지식재산권 보호, 「Carrot」)에서는 자유시장에 반대 / 지칭: 83쪽 ¶3 them · They = 핑크 타이드 정부들 / 83쪽 ¶4 his predecessor = 마두로의 전임자(차베스) / 83쪽 ¶5 its = 브라질의 · whose = 천연자원 산업의 / 84쪽 첫 줄 it(was through a coup) = 정권 상실.

> **한 줄 요약** 핑크 타이드 정부들은 신자유주의를 되돌려 평등과 성장을 함께 이루었지만 고생산성 산업을 키우지 못해 원자재 호황이 끝나자 정권을 잃었고, 그래도 신자유주의 구체제는 돌아오지 않았다.

10-6 칠레의 선택, 그리고 워싱턴 컨센서스의 황혼 84쪽 ¶2 ~ 85쪽 ¶3

원문 위치 원서 84쪽 ¶2 ~ 85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4쪽 ¶2 첫~둘째 문장	countries that had not joined the Pink Tide … Mexico and Peru … López Obrador and Pedro Castillo … 2019 and 2021 respectively	respectively — 짝 맞추기 함정
★	84쪽 ¶3 첫 문장	Gabriel Boric, a thirty-five-year-old former student activist … Frente Amplio, or the Broad Front … December 2021	인물 · 숫자
★	84쪽 ¶3 둘째 문장	Since the military coup in 1973, Chile had been the trailblazer for neo-liberalism … even anticipating … Thatcher and Reagan	과거완료 계속 · 숫자
◆	84쪽 ¶3 셋째~넷째 문장	it was as if Americans had voted to ban Coca-Cola. Perish the thought…	밑줄 의미 1순위 · as if + 과거완료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4쪽 ¶4	The rejection … has been less visible in other parts of the developing world, such as Asia and Africa	요약문의 주제문
▲	84쪽 ¶5 첫 문장	had not followed the Washington Consensus policies in the first place as rigidly as did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as ~ as 뒤 도치 · 요약문 (A)
★	84쪽 ¶5 둘째~셋째 문장	relatively few Asian countries have had to borrow heavily … less ideological approach … not implemented in their extreme forms	아시아의 까닭 세 가지
★	84쪽 ¶6 첫 문장	have found it more difficult to openly reject them, given their greater dependence on the Washington institutions for financing	가목적어 it · 요약문 (B)
★	85쪽 첫 줄(84쪽 ¶6 둘째 문장)	the need for a much more active role for the state than what is recommended by the Washington Consensus	아프리카의 변화
★	85쪽 ¶1 둘째 문장	slower growth, higher inequality and more frequent financial crises … the 'mixed economy', in which the government played a more active … role	어법 1순위(in which)
★	85쪽 ¶2 둘째 문장	create the 'space' for their producers to 'grow up' … trade protection, subsidies, regulation of foreign investors	주장 1순위 · 통합 사고 빈칸
◆	85쪽 ¶2 셋째 문장	a 'cookie cutter' approach, in which the same set of policies was recommended to all countries	비유 — 밑줄 의미
◆	85쪽 ¶3	a successful product requires happy customers … looks set to disappear into the twilight of history	결론 · 첫머리 되받기 · 추측(looks set to)

내용

게다가 2010년대 말과 2020년대 초에는 핑크 타이드에 끼지 않았던 라틴아메리카 나라들도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멕시코와 페루에서는 좌파 성향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페드로 카스티요가 각각 2019년과 2021년에 대통령이 되었다. 2022년 6월에는 구스타보 페트로가 콜롬비아 역사상 첫 좌파 대통령으로 뽑혔다. 이 흐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2021년 12월 칠레 대선에서 좌파 정당 연합인 Frente Amplio(곧 Broad Front)를 대표한 35세의 전 학생 운동가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가 이긴 것이다. 1973년 군사 쿠데타 이래 칠레는

라틴아메리카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신자유주의의 선구자였고, 1980년대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앞지르기까지 했다(「Okra」 참조). 그러니 '칠레는 신자유주의의 발상지였고, 또한 그 무덤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한 보리치를 칠레가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마치 미국인들이 코카콜라 금지에 표를 던진 것과 같았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에 대한 거부는 아시아 ·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덜 눈에 띄었다. 아시아에서는 주로 이 지역 나라들이 애초에 라틴아메리카 나라들만큼 엄격하게 워싱턴 컨센서스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체로 경제 성과가 좋아 워싱턴 기관들에서 크게 빌려야 했던 아시아 나라는 비교적 적었고, 그래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일 필요도 적었다. 또 많은 아시아 나라는 경제 정책에 덜 이념적으로 접근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일 때에도 라틴아메리카처럼 극단적인 형태로 시행하지는 않았다. 아프리카 나라들은 라틴아메리카보다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지만(86쪽 각주 ix), 자금을 워싱턴 기관들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드러내 놓고 거부하기가 더 어려웠다. 그래도 지난 10년 남짓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워싱턴 컨센서스가 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져 왔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부자 나라에서조차 잘 작동하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기에 이 나라들은 그 앞의 '혼합 경제' 시기보다 성장은 느리고 불평등은 크고 금융 위기는 잦았다. 혼합 경제 시기에는 정부가 시장의 힘을 억제하고 규제하는 데 더 적극적인 — 신자유주의의 눈으로 보면 더 간섭하는 — 역할을 했다(86쪽 각주 x: 저자의 앞 책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참조). 그러나 개발도상국에게 신자유주의 정책은 그들의 필요에 특히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재앙이었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정설은, 개발도상국은 무역 보호 · 보조금 · 외국 투자자 규제와 그 밖의 정부 지원으로 생산자들이 '자라나' 더 높은 생산성의 산업에 뛰어들 능력을 갖출 '공간'을 만들어야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했다(「Prawn」 · 「Banana」 참조). 설상가상으로 특히 1980~90년대에 워싱턴 기관들의 정책 권고는 깎아내리는 말로 '쿠키 커터(cookie cutter)' 방식이라 불리게 된 것, 곧 나라마다 경제 조건과 사회 · 정치 환경이 달라도 모두에게 똑같은 정책 묶음을 권하는 방식을 취했다. 코카콜라의 계속된 성공은 (저자처럼) 아주 만족하지는 않는 소수가 있더라도 성공한 제품에는 만족한 고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한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 묶음은, 한때 개발도상국에서 그토록 지배적이었지만, 이제 역사의 황혼 속으로 사라질 것 같다.

어법

- **In Mexico and Peru, left-leaning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and Pedro Castillo took the presidency in 2019 and 2021 respectively** : respectively = 각각(앞의 순서대로 짝지음: 멕시코 · 로페스 오브라도르 · 2019 / 페루 · 카스티요 · 2021).
- **Since the military coup in 1973, Chile had been the trailblazer for neo-liberalism not just in Latin America but in the world, even anticipating the neo-liberal policies of Margaret Thatcher and Ronald Reagan** : had been = 과거완료 계속(2021년 선거 때까지 이어진 상태). not just A but B = A뿐 아니라 B도. anticipating = 분사구문(~을 앞지르기까지 하며).
- **So when Chile elected Boric as the president, who had declared that …, it was as if Americans had voted to ban Coca-Cola** : who의 선행사 = Boric(사이에 as the president가 끼었다). had declared = 선거보다 앞선 일. as if + 과거완료 = 마치 ~했던 것 같은(사실과 반대).
- **the countries in the region had not followed the Washington Consensus policies in the first place as rigidly as did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 in the first place = 애초에. as ~ as 뒤 비교절에서 대동사 did와 주어가 도치(as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did와 같다).
- **Their generally good economic performance has meant that relatively few Asian countries have had to borrow heavily …, making it less necessary for them to adopt neo-liberal policies** : mean that ~ = ~이라는 결과를 낳다. few = 거의 없는(부정의 뜻). making it(가목적어) + 형용사 + for + 의미상 주어 + to V(진목적어).
- **The African countries, even though they have suffered even more than did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 have found it more difficult to openly reject them** : even though = 양보. than did ~ = 비교절 도치. find + it(가목적어) + 형용사 + to V. to openly reject = 분리 부정사. them =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

- **these countries have had slower growth, higher inequality and more frequent financial crises than they had in the preceding decades of the 'mixed economy', in which the government played a more active ... role** :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뒤가 완전한 절 → which만 쓰면 오답). than they had = 앞선 수십 년과의 비교(had = 대동사).
- **Unable to make its customers happy, the Washington Consensus policy package, once so dominant in the developing world, looks set to disappear into the twilight of history** : Unable ~ = (Being) unable ~의 분사구문(이유). once so dominant = 주어를 덧붙여 설명하는 형용사구(한때 그토록 지배적이던). look set to V = ~할 것 같다(추측 — 단정이 아니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ctivist	운동가	campaigner	—
coalition	연합	alliance	—
coup	쿠데타	overthrow	—
trailblazer	선구자	pioneer	follower
anticipate	앞지르다, 앞서 하다	foreshadow	—
rigidly	엄격하게	strictly	flexibly
ideological	이념적인	doctrinaire	pragmatic
intrusive	간섭하는	meddlesome	unobtrusive
restrain	억제하다	curb	unleash
unsuited	맞지 않는	unfit	suited
derogatorily	깎아내려	disparagingly	approvingly
twilight	황혼, 쇠퇴기	decline	dawn

내용 일치 멕시코 로페스 오브라도르(2019) · 페루 카스티요(2021) · 콜롬비아 페트로(2022년 6월, 첫 좌파) · 칠레 보리치(35세 전 학생 운동가 · Frente Amplio · 2021년 12월) · 칠레 = 1973 군사 쿠데타 이후 신자유주의의 선구자(대처 · 레이건보다 앞섬) / 아시아 = 애초에 덜 엄격히 따름 · 크게 빌린 나라가 적음 · 덜 이념적 · 극단적 시행 없음 / 아프리카 = 피해는 더 큼 · 자금 의존으로 드러내 놓고 거부하기 어려움 · 지난 10년 남짓 더 적극적인 국가 역할의 필요 인식 / 부자 나라 = 1980년대 이후 느린 성장 · 높은 불평등 · 잦은 금융 위기 / 개발도상국 = 재앙 · 생산자가 자랄 '공간' · 쿠키 커터 방식(1980~90년대) / 결론 = 만족한 고객 없이 성공 없음 · 사라질 것 같다. **밑줄 의미** it was as if Americans had voted to ban Coca-Cola = 신자유주의의 본고장이 신자유주의를 버린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 Perish the thought = 그런 일은 생각도 하기 싫다는 농담 / more intrusive, from the neo-liberal point of view = 같은 정부 역할을 신자유주의는 '간섭'으로 본다 / a 'cookie cutter' approach = 쿠키 틀로 찍어 내듯 모든 나라에 같은 정책 / the twilight of history = 워싱턴 컨센서스가 저물어 간다(looks set to = 추측) / 지칭: 84쪽 ¶5 Their · them = 아시아 나라들 / 84쪽 ¶6 them(reject them) =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 / 85쪽 ¶1 these countries = 부자 나라 / 85쪽 ¶3 it(happy with it) = 성공한 제품(코카콜라) · its customers =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 묶음의 고객.

> **한 줄 요약** 신자유주의의 선구자 칠레마저 좌파를 택했고 아시아 · 아프리카에서는 거부가 덜 드러났지만, 개발도상국을 만족시키지 못한 워싱턴 컨센서스는 역사의 황혼 속으로 사라질 것 같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10 COCACOLA]

범위	Coca-Cola (원서 PDF 80~86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Neo-liberal policies have been a disaster for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they ignored what those countries actually needed. Most importantly, neo-liberal orthodoxy denied that a poor economy can advance only if its producers are given the chance to mature and gain the capabilities for higher-productivity industries. That takes trade protection, subsidies, rules on foreign investors and other government support. Worse, in the 1980s and 1990s the Washington institutions took a scornfully named 'cookie cutter' approach, prescribing the same package to every country whatever its conditions.

① Poor countries should copy rich countries' policies.
② Poor countries should borrow more from Washington.
③ Foreign investors should face no regulation.
④ Poor countries need state support for their producers to grow.
⑤ Trade protection makes producers lazy.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Bolivia was not alone in rejecting the Washington Consensus and prospering. From the late 1990s to the mid-2000s, left-wing or left-leaning parties won power in Brazil, Argentina, Venezuela, Ecuador and Uruguay, a shift now called the Pink Tide. Though less radical than Bolivia, they undid many neo-liberal policies. They spent more on welfare for the poor, and some raised minimum wages and strengthened unions, giving workers a larger share of national income. Against neo-liberal forecasts, the result was more equality and quicker growth. The exception is Maduro's Venezuela, whose economy collapsed.

① The Pink Tide: Proving the Forecasts Wrong
② Why Bolivia Copied Its Neighbours
③ Venezuela: A Model for the Region
④ Trade Unions Against Left-Wing Governments
⑤ How Neo-liberalism Saved Latin America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author does not claim that the Pink Tide nations got everything right. Inequality fell in most of them but remained very high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More seriously, their governments did too little to build high-productivity industries able to replace mining, agriculture and other natural resource industries, whose long-run growth potential is limited. Brazil was the biggest failure in this respect. Under Lula da Silva and Dilma Rousseff, it largely kept the free-market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it had inherited from neo-liberal times and allowed its once-mighty factories to wither past saving.

① Inequality kept rising under the Pink Tide.
② Mining and agriculture offer the best growth.
③ Brazil was the Pink Tide's greatest success.
④ Free-market policies saved Brazil's industry.
⑤ The Pink Tide neglected high-productivity industries.

4. 밑줄 친 has no original members left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Coca-Cola was named after its two key ingredients, the coca leaf and the kola nut. In 2016, however, a synthetic chemical took the place of the kola nut in the drink. Coca-Cola has thus become like an ageing rock band that, after years of line-up changes caused by artistic disagreements and clashing egos, has no original members left. The coca leaf, the drink's other founding member, which once supplied cocaine, had already 'quit the band' over a century earlier,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company took it out of the recipe once it had become obvious how addictive cocaine was.

① the drink has kept changing its advertising
② the company has replaced all its founding managers
③ neither of the drink's two original key ingredients remains in it
④ the drink no longer appeals to its original fans
⑤ the recipe has stayed the same since the beginning

5. 밑줄 친 it was as if Americans had voted to ban Coca-Cola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most striking sign of Latin America's turn to the left came in Chil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December 2021, voters chose Gabriel Boric, a 35-year-old former student activist who represented the Broad Front, a coalition of left-wing parties. Ever since its military coup of 1973, Chile had led the way for neo-liberalism, not only in Latin America but across the world, getting there even before Margaret Thatcher and Ronald Reagan did in the 1980s. Boric had declared that Chile, the birthplace of neoliberalism, would also be its grave. So when such a man won, it was as if Americans had voted to ban Coca-Cola.

① Chile's voters had turned against American products
② Americans were likely to follow Chile's example soon
③ Boric planned to ban foreign soft drinks in Chile
④ the election result was of little real importance
⑤ neo-liberalism's pioneer rejecting it was almost unthinkable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Coca-Cola was a symbolic minefield, but Marshal Georgi Zhukov, who directed the Soviet triumphs against the Nazis at Leningrad and Stalingrad, found a clever way through it. During the war, it is said, Dwight Eisenhower introduced the drink to ① him; at the time ② he was an American general, though he later became president. Between May 1945 and June 1946, while commanding the Soviet occupying forces in Europe, Zhukov asked the company for a colourless version, so that ③ he could enjoy it without being caught drinking the essence of American capitalism. With the caramel colouring removed, the clear drink was made in Brussels, put in a plain bottle and sent to ④ his European headquarters. It was a clever move, worthy of a great strategist like ⑤ him.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Unlike the author, billions love Coca-Cola's very sweet taste. Writing in the mid-2000s, the British journalist Tom Standage noted that the company operated in two hundred territories, more than the UN had members, and that 'Coca-Cola' was reportedly the most widely understood phrase on earth after 'OK'. Arguably America's most iconic product, the drink came to stand for both the good and the bad sides of American capitalism. To dissident young people in the former Soviet Union, it meant freedom; to the Indian left until the 1980s, it embodied consumerism and the manipulation of what consumers want. In 1977, India cancelled the company's licence after it declined to set up a joint venture with an Indian partner. It returned in 1993, soon after India liberalized its economy in 1991.

① 저자는 많은 사람처럼 코카콜라의 단맛을 좋아한다.
② Standage에 따르면 코카콜라 회사가 활동하는 지역은 유엔 회원국 수보다 적다.
③ 옛 소련의 반체제 청년들에게 코카콜라는 자유를 뜻했다.
④ 인도 정부는 코카콜라가 현지 기업과 합작하려 하자 면허를 취소했다.
⑤ 코카콜라 회사는 1991년에 인도로 돌아왔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At first, Coca-Cola was sold from soda fountains in drug stores, perhaps to strengthen its image as a medicine, since fizzy drinks were then thought to be good for health. Bottling began in 1894, which made it possible to ship the drink over long distances and so hugely expanded its possible market. By the middle of the 1910s it was popular enough to attract fakes, and the company fought back with an advertising campaign urging people to 'Demand the genuine.' Exports started in the 1920s, and by the 1930s the drink had turned into a national icon. A 1938 description called it 'the sublimated essence of America'. The name itself came from Frank Robinson, one of Pemberton's business partners, who took it from the drink's two key ingredients.

① 처음에는 약국의 소다 파운틴에서 팔렸다.
② 1894년에 병에 담기 시작해 먼 곳까지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③ 1910년대 중반에는 가짜가 나올 만큼 인기를 얻었다.
④ 코카콜라라는 이름은 펨버턴이 두 핵심 재료에서 따와 직접 지었다.
⑤ 1938년에 '미국의 승화된 정수'라고 묘사되었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Even in the rich countries, neo-liberal policies have not delivered. Since the neo-liberal era began in the 1980s, these economies ① have grown more slowly, become more unequal and suffered financial crises more often than they ② did in the earlier 'mixed economy' decades. In that era, ③ which the state took a more active part in holding back and regulating market forces, growth was faster. Neo-liberals, of course, would describe that part as ④ intrusive rather than active. Yet the record of their own policies in the rich world ⑤ looks poor next to that of the mixed-economy decades.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author admits that he seldom drinks Coca-Cola, or any cola at all. Still, on a hot summer afternoon, nothing beats an ice-cold Coke, even for him. He refuses, however, (A) [to drink / drinking] it directly out of a can or bottle. This is not (B) [because / because of] he cares about drinking etiquette; he simply needs a container, and he would even use a bowl if he had to. What he wants is Coca-Cola with plenty of ice cubes in it, even when it is already cold, as he finds the drink too sweet by itself and needs to have it (C) [diluted / diluting].

	(A)	(B)	(C)
①	to drink	because	diluted
②	to drink	because of	diluted
③	drinking	because	diluted
④	drinking	because of	diluting
⑤	to drink	because	diluting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Kola nut comes originally from West Africa. It contains ① stimulants such as caffeine, in larger amounts than coffee or most kinds of tea, and theobromine, a substance that chocolate also contains. Thanks to this quality, people in West Africa have long chewed kola nut to keep themselves alert and to ② increase their appetite, which lets them endure long, hard effort without tiredness or thirst. In West African cultures, chewing kola nut together plays an ③ important part in community gatherings, rites of passage and ceremonies held to ④ seal treaties and contracts. Kola nut is also said to have made the dirty, stale water carried on long sea voyages more ⑤ drinkable, which is why ships carrying slaves from Africa used it.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Once in office, Morales nationalized natural gas, Bolivia's main export industry. He went on to bring the 'utilities' (power, water and the railways) at least partly under state ownership, raised the royalties that mining companies, mostly foreign, paid to the government, and spent more on social welfare. Many economists warned that these moves would end in economic disaster, since, according to the Washington Consensus, nationalization, hostility to foreign investors and 'downward' redistribution of income are the worst things a government can do to an economy. Yet Bolivia's record _____. Income inequality fell sharply, as might be expected from his policies, but growth also sped up: per capita income, which had grown by 0.5% a year in the Washington Consensus period (1982–2005), grew by 3% a year under Morales.

① proved the doubters wrong
② confirmed the economists' fears
③ depended on foreign investors
④ remained much the same as before
⑤ was hidden from the public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These changes of government, however, did not bring back the old neo-liberal order.

Having failed to cut their reliance on primary commodities, the Pink Tide countries took a heavy blow when the 2000s commodity boom, driven by China's super-growth, ended in 2012–13. (①) Consequently, in the late 2010s every one of these governments lost power except Venezuela's, which had become a strange parody of socialism under Maduro's autocratic rule. (②) Most were voted out, but in Bolivia the government fell in a coup d'état. (③) Pink Tide parties regained power in both Argentina and Bolivia after only a brief break. (④) In spring 2022, the author notes, many commentators thought the Pink Tide might win Brazil's 2022 election again after Jair Bolsonaro's disastrous presidency. (⑤) Meanwhile, some countries outside the Pink Tide were moving left too.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Cocaine is obtained from the coca plant, native to western South America. ① In the high Andes, indigenous people have long chewed the leaves or made tea from them, easing pain while working in thin air and going without food, as the leaves curb appetite. ② Used this way, coca is neither addictive nor harmful, and it plays significant cultural and religious roles in indigenous communities. ③ Evo Morales, a former Bolivian president, was himself a coca farmer who rose to prominence by fighting the US-backed forced eradication of coca farming. ④ Bottling of Coca-Cola started in 1894, which let the drink travel long distances. ⑤ In 2005 he became president on a wave of protest against the 'Washington Consensus', which had long served his country badly.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inventor of Coca-Cola was John Pemberton, who lived in Atlanta, Georgia.

(A) In 1886, however, alcohol was banned in Atlanta and the surrounding Fulton County, at that time the main market for his drink. So Pemberton removed the alcohol and added sugar, to hide the bitterness of the coca leaf and kola nut, along with citrus oils. This alcohol-free version was named Coca-Cola.

(B) This wine-based drink was not the first to combine alcohol with coca leaf. Vin Mariani, a wine with coca leaves soaked in it for half a year, was especially popular, counting Queen Victoria and Thomas Edison among its fans. What was new about Pemberton's recipe was the kola nut, and the drink was marketed as a 'nerve tonic'.

(C) In 1885 he brought out Pemberton's French Wine Coca, made mainly from wine, kola nut and coca leaf.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sia and Africa, two other regions of the developing world, have turned against the neo-liberal Washington Consensus less visibly than Latin America. In Asia, this is mainly because countries had never followed those policies as strictly as Latin America had. Because their economies generally did well, few Asian nations needed large loans from the Washington institutions, so they felt less pressure to go neo-liberal. Their less ideological approach also kept the neo-liberal measures they did adopt from being pushed to extremes. African countries suffered from these policies even more than Latin America did, but they have found open rejection harder, since they rely more on Washington for funding. Even so, Africans increasingly see the need for a more active state.

→ The rejection of the Washington Consensus has been less visible in Asia, which had followed it less (A) _____, and in Africa, which is more (B) _____ on the Washington institutions for funding.

① loosely ..... dependent
② rigidly ..... dependent
③ rigidly ..... independent
④ rigidly ..... critical
⑤ loosely ..... independent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In 1885, John Pemberton launched French Wine Coca; after alcohol was banned in 1886, he turned it into Coca-Cola, a name invented by his partner Frank Robinson. Kola nut, one of its two key ingredients, comes from West Africa, while the coca plant grows natively in western South America. In 2016, a synthetic chemical took the place of kola nut. In 1977, India cancelled the company's licence, though the company returned in 1993. In Bolivia, per capita income grew by 0.5% a year under the Washington Consensus but by 3% a year under Morales. Asian countries had followed the Washington Consensus less rigidly than Latin American countries.

<QUIZ>

(1) In what year did the Indian government cancel Coca-Cola's licence?

Answer for (1): _____

(2) In what year did John Pemberton launch French Wine Coca?

Answer for (2): _____

(3) Who invented the name Coca-Cola?

Answer for (3): _____

(4) Where does kola nut come from?

Answer for (4): _____

(5) In what year did a synthetic chemical take the place of kola nut?

Answer for (5): _____

(6) By how much a year did Bolivia's per capita income grow under Morales?

Answer for (6): _____

(7) Is it true or false that Asian countries followed the Washington Consensus as rigidly as Latin American countries?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False	N. 1.3%
B. 1886	O. 1885
C. western South America	P. Tom Standage
D. 0.5%	Q. 1938
E. 1993	R. Frank Robinson
F. 1977	S. 2005
G. True	T. Dwight Eisenhower
H. 1894	U. 2016
I. Atlanta	V. 2012
J. 1991	W. Brussels
K. John Pemberton	X. 1973
L. 3%	Y. 2021
M. West Africa	Z. Benito Juárez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나는 그 음료가 그것만으로는 너무 달다고 여겨서 묽혀야 한다. (find + O + 형용사 / have + O + p.p.)

02 그들은 내게는 지나치게 단 코카콜라의 맛을 좋아한다. (관계대명사 what)

03 아마도 가장 상징적인 미국 제품이어서 코카콜라는 미국 자본주의를 상징하게 되었다. (분사구문 / come to V)

04 그는 전쟁 중에 그 음료를 소개받았다고 한다. (be said to have p.p.)

05 특히 인기 있었던 것은 Vin Mariani였는데, 그 팬 가운데에는 빅토리아 여왕도 있었다. (보어 도치 / whose)

06 그것은 1894년에 병에 담기기 시작해 장거리 운송을 가능하게 했다. (begin to be p.p. / 결과의 분사구문)

07 콜라 너트가 아프리카에서 오는 노예선에서 쓰였다고도 한다. (It is said that)

08 그는 이어서 공익 사업을 국유화했다. (go on to V)

09 브라질 정부는 한때 막강했던 제조업이 쇠퇴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let + O + 원형부정사)

10 그것은 마치 미국인들이 코카콜라를 금지하기로 투표한 것과 같았다. (as if + 과거완료)

11 아시아 나라들은 애초에 라틴아메리카 나라들만큼 엄격하게 그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 (as ~ as 뒤 도치)

12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 묶음은 역사의 황혼 속으로 사라질 것 같다. (look set to V)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저자가 콜라를 마시는 방법	
Standage가 든 숫자 / 시기	
'Coca-Cola'보다 널리 통한다고 하는 말	
인도의 면허 취소 / 복귀 / 경제 자유화	
주코프에게 콜라를 소개했다고 하는 사람	
투명한 콜라를 만든 곳 / 방법	
콜라의 발명자 / 1885년의 음료	
Vin Mariani의 팬	
알코올을 뺀 해 / 대신 넣은 것	
병입 / 수출 / 국가의 상징	
이름을 지은 사람	
콜라 너트의 원산지 / 코카의 원산지	
콜라 너트를 뺀 해 / 코카 잎을 뺀 때	
모랄레스의 재임 / 그 앞의 원주민 대통령	
워싱턴 컨센서스의 네 정책 / 세 기관	

항목	답
볼리비아의 1인당 소득 성장률 / 지니계수	
핑크 타이드의 나라(1990년대 말~2000년대 중반)	
핑크 타이드의 최대 실패 / 제조업 비중	
원자재 호황이 끝난 때	
보리치의 당선 / 칠레가 신자유주의의 선구자였던 기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1인당 소득 성장률	

4-3. 통합 사고 문제 – 5장과 10장을 잇는 자리

문제

5장에서 저자는 한 나라의 생산 능력은 저절로 바뀌지 않고 크게 바꾸는 데 적어도 20년이 걸리므로 그런 변화는 자유무역 아래에서 일어날 수 없으며, 자유무역 아래에서는 새 산업의 미숙한 생산자들이 더 크고 뛰어난 외국 경쟁자에게 금세 쓸려 나간다고 썼다(49쪽 ¶2). 또 아이를 다 자랄 때까지 보호하고 기르듯,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의 정부는 젊은 산업이 생산 능력을 키워 뛰어난 외국 경쟁자와 겨룰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고 길러야 한다는 '유치산업' 논리를 소개했다(49쪽 ¶3). 10장에서 저자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긴축 재정 · 무역 자유화 · 규제 완화 · 민영화를 내세웠다고 썼고(82쪽 ¶4), 핑크 타이드 정부들이 천연자원 산업을 대신할 고생산성 산업을 키우는 데 충분히 힘쓰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83쪽 ¶5), 신자유주의 정책은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특히 맞지 않아 그들에게 재앙이었다고 썼다(85쪽 ¶2). 이를 바탕으로, 아래 85쪽 ¶2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원서 낱말(s로 시작하는 한 단어)을 쓰고, 그 근거를 5장과 10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5장 또는 10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것: Above all, the neo-liberal orthodoxy denied the fact that developing countries can develop their economies only if they can create the '_____' for their producers to 'grow up' and acquire the capabilities to engage in higher-productivity industries through trade protection, subsidies, regulation of foreign investors and other supportive government measures.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